



Domine quo vadis(1601-02), Annibale Carracci, National Gallery, London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14,6)

■ 미사 전례

- 제 1독서: 사도 6,1-7
- 화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제 2독서: 1베드 2,4-9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복 음 : 요한 14,1-12

- **5월 15일(금)까지** LA교구의 모든
미사는 중지하며 성당 건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성당 사무실 전화 문의시간

요 일	시간
수,목,금	오전 9:00 ~ 오후 5:00
토요일	오후 1:00 ~ 오후 7:00
주 일	오전 8:00 ~ 12:00

성삼 소식

우리들의 정성 (2020. 5. 3 현재)	
교무금	2,480.00
건축 헌금	900.00
성소 후원금	10.00
교무금(8명) 김순도, 김영길, 김창기, 김탁제, 은희정, 이규인, 이용배, 홍익표, 건축헌금(1명): 은희정, 성소후원금(4명)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한 기도

- 합동 묵주 고리기도 매일 저녁 8:00
- 기간: 4월 6일 ~ 5월 31일(주일)까지
- ※ 사도신경, 묵주기도, 성모송 10번

요일	신비	구역별
월요일	환희	1구역: 신비 1단 2구역: 신비 2단 3구역: 신비 3단 4구역: 신비 4단 5구역: 신비 5단
화요일	고통	
수요일	영광	
목요일	빛	
금요일	고통	
토요일	환희	5구역: 신비 5단
일요일	영광	

☞ 성서쓰기 노트 & 부활 계란 작품 봉헌

- “요한복음 성서 쓰기 노트”와 “2020 부활 계란작품”은 미사가 시작되는 날 갖고 오셔서 봉헌해주세요.
- “부활 계란 작품 사진”은 추가로 5월 15일(금) 까지 연장하여 받습니다.

<부활 제5주일에 성삼성당 교우들께 드리는 글>

우리 성삼 성당 모든 교우 여러분~!! 한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난 3월 13일 공동체 미사 참례 관면과 중단조치가 발표되고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정치, 경제적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에 따라 생활 환경 개방의 테두리가 넓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염병의 위험은 상존해 있습니다. LA 대교구 차원에서 5월 15일까지 미사를 중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미사가 재개되고 성당 문이 활짝 열릴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발표될 LA 교구의 지침과 세부방침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반가운 모습으로 기쁘게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모두 함께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일치 하도록 합시다. 지난 5월 6일 수요일 일반 알현 때, 기도에 관하여 주옥같은 말씀을 하신 교황 프란치스코의 강론을 소개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걸인”이기 때문이라는 교황님의 말씀이 무척 마음에 와 닿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부활 제5주일에, 주임신부 양태현 그레고리오 올림)

*** 부활 제5주일 방송 미사 안내 (유튜브 - KCBC US)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를 주제로 하는 교리 교육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숨결이며, 믿음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과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인 바르티매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마르 10,46-52 참조). 이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이야기보다 가장 귀여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예리코의 변두리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인물이 아니라,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앉은 곳을 지나가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예리코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순례자들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나다니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바르티매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던 자캐오를 기억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캐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바르티매오는 고함치는 목소리처럼 복음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 하지만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티매오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소리칩니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47절)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외치자 사람들은 귀찮아졌습니다. 예의 바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자코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구시오!” 하지만 바르티매오는 잠자코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47절). 은총을 구하고, 하느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사람들의 이런 고집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는 외치고 두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서 멸시를 받던 바르티매오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함소리를 듣습니다. 바르티매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하십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곧, 외침이 청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51절 참조).

예수님이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52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멸시받는 바르티매오에게서 하느님의 자비와 힘을 끌어내는 믿음의 온전한 힘을 다시 인식하십니다. 신앙은 들어올린 두 손과 고함치는 목소리를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리서는 “겸손은 기도의 초석”(『가톨릭교회 교리서』, 2559항)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땅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흙(humus)에서 나옵니다. 흙이라는 말에서 “겸손함(umile)”과 “겸손(umilt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우리 불확실성의 상태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갈증에서 나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60-2561항 참조).

우리는 바르티매오에게서 믿음이 외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그 외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르티매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바르티매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종의 “묵비권 행사(omertà)”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거슬러 저항하는 것이지만,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적응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신앙은 구원받기를 희망하지만,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악에 적응하여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르티매오의 외침과 함께 수요 일반알현 교리 교육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에 이미 모든 게 적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르티매오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청원해도 소용이 없다고, 청원하는 것은 응답 없는 외침일 뿐이라고, 그냥 귀찮은 소음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니 소리지르지 말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결국엔 바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반대 주장보다 더 강력하게 청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여정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들은 피조물 전체에 아로새겨져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것이 자비의 신비를 통해 자신의 궁극적인 완성을 찾으려고 청원하고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고함소리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눕니다. 지평은 아직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로마 8,22)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이러한 피조물의 ‘침묵의 고함소리’를 표현합니다. 그 침묵의 고함소리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억압받은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걸인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59항 참조). 인간이 “하느님께 비는 걸인”이라는 표현은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트민 백화점(9가+ 웨스트민)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계원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 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가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애틀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